

떡볶이



어릴 적 엄마 손 잡고 다니던 떡볶이집.
이젠 나의 아이들이 킥보드를 타고 다니네!

나의 추억 한 페이지



우리 동네에 있는 오래된 떡볶이 가게가 재개발로 이전을 한다. 지금의 모습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싶은 고객들을 찾아 마을 속에 있던 가게의 모습과 마을의 변화된 모습을 들어보고 마음속 어릴 적 추억인 이곳의 모습을 사라지기 전에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 시민기록일지

- 면담일시

첫 번째 손님 - 2021. 09. 17. / 두 번째 손님 - 2021. 10. 07

세 번째 손님 - 2021. 10. 25 / 네 번째 손님 - 2021. 10. 28.

- 면담자 : 정은주

[첫 번째 손님]

학익동에 오래 거주하여 마을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았고
학익시장을 좋아했던 학익동 토박이 주민이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얼레꼴레떡볶이의 지금
건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 간다고 해서, 추억
의 얼레꼴레떡볶이를 한번 기록을 해보고 싶은데요. 얼레꼴레떡볶
이를 언제부터 이용하셨어요?

한 35년 전쯤 같아요.

35년이나요? 그럼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40대 중반이요. 얼레꼴레떡볶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다녔고
요. 그전에도 목욕탕 다니면서 이용을 했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면 그전부터 이 가게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오래됐구나. 그럼 어떻게 이 가게를 알게 돼서 여기를 찾아와서
떡볶이를 드시게 됐어요?

시장 안에 송학탕이라는 목욕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욕탕을

갔다가 이제 엄마가 이제 시장 들르시면서 이 목욕하고 나면 배가
고프니까 항상 들러서 먹었었죠.

기억하는 알레폴레떡볶이의 맛을 표현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 다녔던 알레폴레떡볶이를 지금도 이용하
고 계신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려서 맛을 이 맛을 평가할 만큼 맛이 더 다를지 잘
모르지만, 맛을 몰랐지만, 그 당시에도 워낙에 매운 걸 잘 못 먹어
서 그런지 매웠다는 기억밖에는 없어요. 매워서 항상 물만 먹었죠.

그럼, 여기는 떡볶이하고 만두를 같이 파는 걸로 되게 유명한 집
인데 그때도 만두가 있었나요?

예. 그래서 아줌마가 만두 있는 모습이 너무 손이 빠르니까 되게
신기하게 쳐다봤었던 기억이 되게 또렷해요.

지금의 맛은 어때요? 어렸을 때는 매웠던 기억이 있다고 하셨잖
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어렸을 때만큼 맵지는 않아요. 오히려 요즘에 너무 매운 떡
볶이가 많다 보니까 약간 좀 순해진 느낌이 있죠. 어렸을 때 맛이
기억이 나는 게 아니다 보니 뭐랄까, 어렸을 때 먹던 맛이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어릴 때 먹었던 추억으로 먹는 것 같아요.

여기에 메뉴 중에 떡만이라는 게 있어요. 드셔보셨어요? 다른 데서는 그런 메뉴가 없고 여기만 가지고 있는 메뉴인 것 같은데 그 맛이 어떤가요?

의외로 떡볶이하고 만두하고 참 조합이 잘 이루어지는 거 같고, 맛있어요.

그럼 매운 거를 만들어 먹으면서 약간 중화시킬 수 있는 것도 있겠네요.

만두의 약간 느끼한 맛. 그러니까 고기가 있으니까 느끼한 맛을 매운 게 잡아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보완해주는 그런 거구나. 그 만약에 떡볶이만 팔았더라면 얼레폴레떡볶이를 지금까지 이용하셨을까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지금처럼 떡볶이에 만두를 넣어서 먹지 않고 매워서 떡볶이 따로 만두 따로 이렇게 먹었었거든요. 그 당시는. 그리고 그렇게 그 당시에 처음 먹었을 때보다 오히려 중고등학교 때 그때도 계속 가게가 있었으니까 그때 먹었던 사람들은 섞어서 먹기 시작을 했었지만, 그전에는 그렇게 섞어서 먹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섞어서 먹는 게 생긴 거예요.

자녀분이 있으신가요? 자녀분들은 얼레폴레떡볶이를 먹어봤나요?

아이들은 맛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냥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맛있다 진짜. 아이들은 정말 단순하게 표현하긴 하는데 그 큰 애 같은 경우는 떡볶이를 안 좋아해서 안 먹고 작은 애는 어렸을 때부터 먹기 먹었는데 참 좋아해요. 이런 떡볶이 맛있다고요.

요즘에는 그 떡볶이 길이가 되게 짧은 집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길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나요?

우리 어렸을 때 긴 거 그렇게 먹었어요.

떡볶이를 애들은 다양하게 먹어봤을 텐데, 여기는 길게 파는 거에 대한 그 먹을 때 불편함 같은 걸 얘기 안 하던가요?

오히려 더 길게 18cm짜리 길게 나온 떡볶이도 애들이 먹을 때 그렇게 불편한 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애들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포장만 해 가는데 예전에 가게에서 먹으면 우리 초등학교 때 먹었던 그 떡볶이집 특유의 알록달록한 그릇이 있잖아요. 여긴 예전에도 그 그릇을 사용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하하.

얼레끌레떡볶이를 추억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그릇에 관한 혹시 추억이나 이미지 이런 게 좀 남아 있으신지 해서 여쭙었어요. 요즘에 레트로가 유행하면서 옛날 그 그릇이 다시 유행하는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그런 그릇을 많이 이용해서 먹어서 지금 옛날 생각나 이런 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혹시 35년 이용하시면서 맛의 변화가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살면서 내가 느끼는 맛도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게가 변해도 변하지 않아도 변했다고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용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맛이 나는데 주변 사람들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 맛이 계속되던가요?

저는 제가 맛을 느끼는 게 저의 입맛이 달라졌기 때문에 혹시 변했더라도 가게가 변한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내 입맛이 변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옛날에는 매운 거를 잘 못 먹었는데 이제는 막 먹고 매운 걸 좋아하니까 옛날만큼 안 매웠다고 느낀 거는 내 입맛이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하니깐요.

그럼, 여기가 지금 재개발이 돼서 현재 가게가 없어지고, 새 위치로 옮기는데요. 떡볶이 가게가 처음부터 그 위치는 아니었다면서요? 지금 있는 위치에서 이 건물이 없어지고 다른 건물로 이사를 가는데 혹시 가게 모습 추억은 혹시 있으신가요?

옛날 가게에 대한 추억은 있으나 지금 가게는 뭐 옛날 가게에 비해 많지 않은 장소니까.

옛날 가게는 어디 있었어요?

시장 안에 있었어요. 저 위쪽 현재 남아 있는 시장 쪽.

그럼 한 번 옮기신 거구나. 지금 가게가요.

그 당시에는 거기 떡볶이집 한 두세 군데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시장 안에. 근데 지금 한 군데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추억은 어떠셨어요? 첫 가게의 추억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줌마가 정말 손 빠르게 만두를 빚는 모습이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 눈에는 그게 굉장히 신기해 보이는. 그럼 이 두 번째 가게는 그냥 이용만 하셔서 특별한 추억은 없으신 거네요. 만약에 얼레플레가 지금 이제 세 번째로 가게를 두 번째 옮기는 거가 되

죠. 재개발되니까. 가게를 새로 오픈한다면, 이렇게 위치 바뀌는 가게에서 어떤 모습이 거기에 이제 내 추억으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주신다면?

옛날 사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옛날 사진을 좀 벽에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오면서 옛날 생각을 좀 추억을 할 수 있겠죠. 옛날 사진 만두 찜통 사진이요. 이게 떡만으로 유명하죠. 그 떡볶이 집이라기보다 떡만으로 유명하니까. 그 커다란 만두 찜통이 있으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옛날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얼레폴레떡볶이가 오래 된 만큼 이 일대 주변 분들은 좀 많이 이용하셨을 것 같아서, 얼레폴레로 떡볶이에 대한 추억을 주제로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손님]

결혼하며 학익동과 인연을 맺었고 어렸을 적 학교 앞에서 먹던 추억의 맛을 이곳에서 찾은 맛에 진심인 주민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얼레골레떡볶이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억의 얼레골레떡볶이 이런 주제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떡볶이라는 게 친숙한 주제잖아요. 언제부터 이 가게를 이용하셨

는지요?

아마 제 기억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지나고 나서부터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용하셨다는 거죠?

인천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결혼하면서 인천으로 왔기 때문에 아마 그때가 110년 전쯤 이때부터 먹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이용을 하시게 됐어요?

지인이 소개해 줘 가지고 가서 먹어보자 했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잖아요. 근데 여기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 유치원 보내놓고 이제 엄마들끼리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여기를 계속 먹고 싶다고 했는데 아이들도 데려와서 먹었더니 그래도 먹더라고요. 그렇게 매운 음식이 아니라고 해서 만두도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즐겨 먹기 시작을 했죠.

지인이 뭐라고 소개를 하던가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분이 어렸을 때 다녔던 데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인천에 유명한 떡볶이집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야.”라고 얘기하면서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렇게 좀 알게 됐어요.

네. 그러면 그 처음 이용하실 당시에 사장님에 대한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나요?

엄청 카리스마가 있는 사장님이 계셨던 걸로 기억나고요.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거는 떡볶이를 넣으시고 양념을 던지듯이 쏟으세요. 냄비에. 그게 굉장히 인상이 남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렇게 대중도 없이 그냥 툭툭툭 국자 큰 넓은 국자를 툭 툭툭 던지듯이 하는데 그게 인상이 남았어요.

사장님의 모습에서는 그런 게 있었지만 가게 전체를 보신다면 그런 사장님의 카리스마와 가게 전체 분위기가 이어지는 게 있던가요?

가게 전체 분위기에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았고요. 편하지 않은 자세로 앉을 수밖에 없는 자리잖아요. 둥그란 의자이고 그리고 정말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등도 대고 먹어야 되고 해서, 저는 가게 자체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식당은 아니니까. 분식집이니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어쨌건 먹기에는 좀 불편했던 거였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사장님의 카리스마는 연결된다 이런 느낌은 전혀 못 받았고 약간 좀 불편하다. 화장실도 좀 불편하고 이랬던 기억나요.

그 가게가 시장 안에 있던 게 아니라 철거 예정이잖아요. 그 위치

에 있을 때 이용을 하신 거죠?

네.

그럼 그 집에 떡볶이하고 만두를 같이 그때부터 팔았나요?

네. 그때도 만두가 늘 있었고 떡만이가 있었고, 순대에 파채 썰어서 올려주셨던 것도 여전히 똑같았고요.

파채. 그것도 특징적이라고 많이들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순대 비린 맛을 파채를 같이 넣어서 먹으면 딱 없어지더라고요.

파값이 한때 7천 원, 8천 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혹시 그 당시에
이용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보낼지 안 내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시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장님이 바뀌는 시기랑 조금 비슷하게 맞물렸어요. 근데 사장님이 바뀌시면서 약간 맛의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가보니까 옛날 맛이 다시 다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자주 가고 있습니다.

바꾸신 사장님이 젊은 분이시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맛이 약간 변했던 식에 있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말씀이시죠.

최근에 가는데 너무 맛있어서요. 주말에 가서 줄 서서 사서 집에 와서 먹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줄 서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에서 못 먹거든요. 요새 포장은 굉장히 순식간인데 줄이 길어서. 그게 이용 시간이 굉장히 병원에 간 느낌이 들기도 해요. 약간 저는 그런 느낌하고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떡볶이하고 만두를 같이 파는 가게가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두 개를 같이 먹었을 때 그 맛의 조합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가 떡만이가 있어요. 떡만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떡볶이 국물 안에 있는 만두를 딱 반으로 쪼개서 국물이 스며들어서 먹었을 때, 그 맛이 우리가 왜 이렇게 우거지해장국 같은 거 밥 말아서 쓱 떠먹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짹 찬 느낌. 그래서 되게 행복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만두를 국물에 적셔서 먹어요.

먹는 방식이 여기가 떡볶이하고 만두를 같이 팔다 보니까 떡볶이가 좀 매워서 만두로 달래시는 분이나 지금처럼 드시는 분이 있고 방식이 되게 다양하시더라고요.

여기 음식이 맵지 않거든요. 제가 옛날에도 막 매워서 못 먹을 정도로 음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적셔서 그 풍만해지는 그 맛이 저는 되게 좋아서 떡만이를 먹거든요.

그게 매력적인 거네요?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게가 철거 예정이라 다른 위치로 가게를 옮기시잖아. 지금의 위치에 대한 추억이 혹시 있으실까요?

주차하기 힘들다? 하하. 여기에 오려면 애들 어릴 때는 애들 데리고 가려고 싱싱카 타고 이렇게 갔던 기억도 있어요. 아기들 데리고 가기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싱싱카를 조명을 태우고 각자 애들이 끌고 저는 쫄레쫄레 갔던 그런 추억은 좀 있죠.

주차의 어려움이 또 그런 추억이 만들어지기도 하네요. 새로 여는 가게는 아직 이제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거기에 내 추억을 담아본다면 어떤 걸 한번 담아보고 싶으실까요?

인천에 내려와서 어릴 때 학교 앞에서 먹었던 떡볶이를 먹게 해줬던 그런 추억. 어렸을 때 500원, 300원 이렇게 먹었던 그 국물 떡볶이가 여기서 구현이 됐다는 이 정도일 것 같아요.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고객 인터뷰라서 제가 이렇게 긴 것보다는 약간 추억 위주로 질문을 드렸어요.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손님]

학익동이 양토마을로 불리던 것을 기억하며 마을을 통해 추억을 만들어왔고 지금도 그리 살고 있는 주민이다.

시민기록단 활동인 ‘미추홀의 음식’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거주지가 어디 신가요?

63번길 학익동입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40대 후반입니다.

미추홀구에 거주하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사 왔고요. 쪽 살다가 결혼해서 잠깐 한 2년 3년 정도 다른 곳에 살다가 다시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결혼은 하셨나요? 또 자녀는 어떻게 되시나요?

결혼은 했고 자녀는 한 명입니다.

제가 오늘 알레폴레떡볶이에 고객으로서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알레폴레떡볶이를 만두, 떡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떡만이가 굉장히 유명하던데 이 가게를 언제부터 이용하셨나요?

제 기억에는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 저희가 학교를 멀리 다녀서 버스를 타고 학익사거리라고 하죠. 전에는 학익삼거리였어요. 거기서 내려와서 집까지 걸어오다 보니까 한두 번 어렸을 때? 얼핏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초등학교 때 몇 번 갔다가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때나 바빠서 못 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회인이 돼서 다시 이제 뭔가 이렇게 여유를 찾으면서 가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용하셨네요.

그렇죠. 가게가 처음엔 시장에 있었던 거라서 이렇게 간판이 딱히 있는 게 아니라서 기억은 없는데, 거기 있었지 않을까 해요. 학익시장 구 시장이라고 해요. 거기가 앞에는 신시장이 있고 좀 안으로 쪽 들어가 보면 구 시장이 있는데, 좀 어두운 골목에 있었던 떡볶이집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게부터 이용을 하셨던 거네요. 지금의 위치가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가 첫 번째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 시장개발이 되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를 버스를 갈아타고 다니면서 여기를 이용하게 된 거라고 하셨잖아요. 시장을 지나서 버스를 타나요?

버스에서 내리면 지금이 학익, 풍림 거기 동아풍림이었어요. 동아풍림에서 저희 집은 신동아 아파트 쪽 주택 있잖아요.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쪽 걸어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교도소가 있었어요. 교도소가 있었고 다 비포장도로였고 교도소를 담을 지나오면 거기가 논이 있고요. 샛길인가 논길 있잖아요. 논길을 걸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거기가 길이 좀 문학 구길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왔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간 거죠. 아주 뭐 길목에 있었던 건 아니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위치정도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 떡볶이 가게를 어떻게 가게 됐는지.

어떻게 가게 됐을까요. 거기 초등학교 때 양토 마을이라고 해요. 거기 학익사거리요. 제가 동아풍림 저 안쪽으로 양토 마을이라는데 그 양토 마을에 사는 친구가 나를 데리고 갔는지 처음 시작한 기억이 안 나네요. 언니랑 같이 갔는지.

그러게.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면 그때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떡볶이를 그렇게 팔았잖아요. 뭐야 뭐지? 리어카라고 하죠. 노점상

에서도 10원에 하나 이런 식으로 50원.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50원 내면 다섯 달 주고 그랬던…….

맞아요.

응,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처럼 1인분으로 팔았으면 그때 당시에는 갈 엄두를 못 냈는데 그때는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팔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지금 하나하나 판 거 말고 그때 당시에 떡볶이 가게 모습은 혹시 기억하세요?

그게 그 기억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별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게가 하나로 딱 꾸며져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시장에 가 보면 그냥 떡볶이집 있고. 그 공간에서. 긴 의자 놓고 앉아서 먹었던…….

그런 느낌 약간 포장마차 분위기요?

포장마차 분위기, 그런 거 맞아요.

긴 의자가 있었구나?

긴 의자였던 그런 기억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오래돼서 제 그 지역에 대한 기억이 약간 왜곡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뭐가 보이겠어요. 떡볶이만 보이지.

지금도 이용하시잖아요. 그때 맛하고 지금 맛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내가 나이가 먹어서 입맛이 변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예전의 맛, 지금의 맛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예전 맛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계속 간 게 아니고 즐겨 간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진짜 용돈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가끔씩 간 기억이라서 맛은 기억이 안 나요. 맛은 기억은 안 나는데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도 뭐 얼레꼴레떡볶이가 특이하게 어묵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때도 어묵 있는 떡볶이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밀가루 떡볶이고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예전에도 그 시장 안에 있었을 때도 만두를 같이 팔았어요? 그때는 만두에 관한 기억은 없어요.

그럼, 여기 두 번째 가게에서부터 만두를 팔기 시작한 건가요?

두 번째 가게에서도 제가 간 지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서 잘 모르겠네요. 어느 순간 가니까 떡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만두를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입장으로 만두까지 사 먹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내 기억에는

제가 만두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만두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요즘에 떡만이를 드셔보셨어요?

저는 떡만이를 그렇게 먹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따로따로 그 때그때 이렇게 적서 먹는 그걸 좋아해요.

드시는 방법이 진짜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떡만이 좋은 점은 그거죠. 1인분으로 떡볶이하고 만두를 다 먹을 수 있다는 장점. 그래서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럴 때 선택을 그렇게 해주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떡볶이 맛이 오히려 기억에 더 남으시는 거죠. 만두에 대한 기억보다.

그거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때 만두까지 사 먹을 수 있는 형편 있는 애들이 몇이나 되었을까요? 부모님이 사주지 않는 한.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학익동이라는 곳이 그렇게 부유한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또 시장이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의 건물 지금 두 번째 가게잖아요. 이 가게도 재개발 때문에 사라지고 다른 위치로 옮기게 되는데 현재의 가게에 혹시 추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추억이라고 해야 하나? 사람이 되게 많아요. 거기는. 항상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내 자리, 네 자리가 없어요. 근데 그냥 거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연결되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4인용 책상이 식탁이 아니라 내 옆자리가 비면 그냥 앉아서 먹는 그런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공간을 남겨두자 뭐 이런 건 없고. 가방 놓을 때조차 없는데 그냥 매고 먹어야 되는 거. 그런 게. 그런 면으로는 조금 고객 서비스 쪽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요. 진짜 근데 옛날 맛으로, 추억으로 먹는 거죠. 밀가루 떡볶이라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맛 때문에. 그 옛날에 막. 그런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시는데, 그런데 그게 옛날에 진짜 떡볶이잖아요. 구루마에서 먹었던.

맞아. 구루마에서 먹었던 추억이요.

진짜 갑자기 문 열고 들어가면 이제 여기 앞에서 이렇게 떡볶이 막

하고 계시고 50원어치 주세요. 그러면 다섯 개 주고…….

학교 앞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 기억. 그런 기억 때문에 제가 먹는 거죠. 깔끔하다 그래야 되나. 이거저거 안 섞으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먹는 것도 있어요.

추적으로 먹는 가게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없어지는 건 좀 아쉬워요. 사실은. 그 맛이 없어요. 그 맛이 있는 떡볶이집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남들은 싹 맛이라고 하는데 그런 맛이면 어때요. 내 입맛에 맞으면 좋지. 진짜 그래서 그냥 좀 아쉬워요. 아예 없어진다 그러면 좀 아쉽고 아니라니까 다행인데 그 분위기가 없어지는 건 아쉬워요.

네. 이전하니까.

깨끗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 분위기를 살릴 수는 없겠지만서도 근데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을 수는 없지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달까지 있고. 다음 달에 이전하시는데 그러면 새로운 가게 이전하는 가게에 내 바람을 담는다면 어떤 가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지?

그냥 가격 안정돼 있고, 이전했다고 가격을 더 올린다거나. 이제 서

민들인데 뭐 가겠세가 비싸져서 그게 걱정이 되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팍 올린다거나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고 그 맛도 요즘 쫓아가지 말고 그걸 유지했으면 좋겠고 그래요.

맛을 그대로.

네. 신기하게 왜 분점을 안 낼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는 그럼 가게도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근데 뭐 그게 현명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현명하신 거긴 한데 좀 아쉽더라고요. 뭐 옥련동 할머니 떡볶이 그러면 많이 체인점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안 하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런 걸 찾는 사람이 그래도 있을 텐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맛만 안 변했으면 좋겠다. 분위기 바뀌는 건 어쩔 수 없고.

오늘 얼레폴레떡볶이가 이전하는 것 때문에 추억으로 남기고자 인터뷰를 했는데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전하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또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번째 손님]

학익동에 오래 거주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이곳을 몰랐다 하시면서 이제라도 알게 되어 마을을 또다시 보게 되었다는 주민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추홀 학산문화원에서 미추홀의 음식에 관해서 인터뷰하러 나왔는데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여쭙봐도 될까요?

우리 나이로 얘기하는 62세예요.

그렇게 안 보이십니다. 혹시 거주지는 어디세요?

지금 현재 거주하는 데는 미추홀구 학익동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거주한 지 오래되셨어요?

지금 거의 한 아파트에서 30년 차 살고 있어요. 그 아파트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분양받았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가 대단지인데 처음에는 작은 평수로 입주를 했다가 그 후로 좀 더 넓혀서 같은 단지 내에서 이사해서 지금 30년째 살고 있네요.

이 동네 터줏대감이시네요. 고향이 인천이세요?

당진이에요. 당진 아세요?

네, 시택이 서산이라.

바로 옆 지나야 서산에 가잖아요. 당진을 지나서. 서당지구 해서 서산 당진은 선거를 할 때 같이 이렇게 묶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혹시 결혼하셨고 자녀분은 어떻게 되시는지?

자녀는 외동아들 하나인데 결혼을 했고요.

손주 있으세요?

지금 이제 첫 돌 맞이해요. 다음 달에.

너무 예쁘겠네요.

예쁘죠. 그건 아마 직접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쁜 거
가 정말 신비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학생들만 키우고 있어서
요. 지금은 이제 좀 힘든 시기, 저한테는 그런데 나이 더 먹어서
손주를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그때 돼야 알 것 같아요.

기대해보세요.

제가 오늘 인터뷰를 부탁드린 건 얼레폴레떡볶이가 오늘 이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새로운 가게에서 오픈하는데, 그
가게를 이용을 좀 하셨다고 해서 그 가게에 대한 추억을 좀 인터
뷰 부탁을 드린 건데요. 얼레폴레떡볶이는 언제부터 이용하게 되
셨어요?

시민기록단에서 각 식당을 인터뷰하는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각자가 그 섭외를 하고 식당을 올렸을 때 쪽 봤더니 음식점
선정한 곳을 다 돌아보고 싶었어요. 그중에 이제 제가 떡볶이를 저
뿐만 아니라 떡볶이는 아마 한국 사람이면 거의 국민 음식이라고
할 정도로 좋아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떡볶이는 자주 먹는
편인데 거기에 이제 얼레폴레떡볶이집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곳
에서 30년을 살면서 바로 옆에 있는 그 집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

서 바로 달려가서 이제 먹었죠. 지금은 포장밖에 안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인지 그래서 포장해 가지고 와서 남편하고 같이 먹게 됐는데 저는 너무 맛있었어요. 육수가 되게 시원하고 우리 왜 뜨거운 걸 마시면서 개운하다 시원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각자 어떤 느낌인지 아마 우리 기존 세대 그들은 알 것 같은데 딱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 고춧가루 빨간색인데도 불구하고 매운맛은 없으면서 약간 맛있게 배우면서 아무튼 그 국물 맛이 되게 개운하고, 그렇게 달지도 않고, 텁텁하지도 않고, 그냥 맑고 개운한 맛으로 저는 기억을 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 맛이 되게 다양하다는 거가 똑같은 음식을 한 자리에서 남편하고 같이 먹었는데 남편은 또 그걸 먹고 공교롭게도 그 음식 때문인 것 같지는 않은데 배탈이 났어. 너무 서로가 반대인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저는 어느 음식점이든 한 번 맛있으면은 연달아서 가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주에 또 갔었어요. 근데 남편은 거기서 머뭇거리지만 제가 또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사 왔는데, 역시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남편은 그냥 별말 없이 먹기는 했는데.

요즘 표현으로 해서 그냥 아주 따끈따끈한 고객이시네요.

그렇죠.

최근에 가시게 되었고 이용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제 오늘

가셨던 가게는 문을 닫았거든요. 얼레폴레떡볶이를 가시게 된 것은 시민기록단의 활동에서 방문해보고 싶은 생각 때문에 가시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떡볶이의 맛은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는데요. 사라 가셨을 때 가게의 모습은 어떠셨어요?

가게의 이미지에 대한 그런 기억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깐요. 오래전에 동네의 지인이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안내를 했는데 기억해보니까 그 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지인도 인천에서 오랜 세월 이제 아마 저와 마찬가지로 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이 집이 이게 유명 오랫동안 되게 이거 인지도가 있는 집이라는 거를 이제 기억해낸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집에 이제 저는 이제 갔는데 저는 음식점에 대한 음식점을 이제 결정을 할 때 그 모르는 음식점을 가게 될 때 이제 그 외관하고 건물의 외관하고 간판을 봐요. 근데 그러니까 그 메뉴하고 그 건물 하고 어느 정도 맞으면 저는 이제 저의 그 느낌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들어가는데 이곳은 물론 떡볶이집 하면은 어떤 특이한 이렇게 건물 떡볶이하고 어울리는 건물 이런 거는 저한테 아직은 이제 서 있는 그림은 없는데 일단 여기 학익동이라는 데가 구도심이잖아요. 그리고 학익 시장이 지금 이제 재개발로 묶여 있는 것만큼 그게 좀 동네가 재개발로 인해서 되게 어수선하잖아요.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구도심이고 오래된 건물이라서, 저는 일단 외관이 이제 고풍적이거나 아니면 엔틱하거나 아니 깔끔한 이미지를 좋아하는데 거기에서는 좀

벗어났지만, 인지도로 소문난 집이라고 하니까 딱 들어갔는데, 저는 맛있는 음식이면 됐다 하는 생각으로 그때 떡볶이하고 만두하고 순대도 하고 싶었는데, 이게 파는 채소 단위가 3천 원씩인 거예요. 근데 간식으로 먹기에 저희 남편하고 둘이 먹는데 세 개를 하기에는 너무 이제 양도 많을 것 같고 해서 떡볶이하고 만두만 사서 먹게 됐죠.

그러면 전에 사장님 할머니 사장님일 때는 예전에 가보신 기억만 있으신 거죠?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는 할머니는 없었고요. 젊은 사람들 한 30대 정도 되는 세 분이였었어요. 남자분 한 분이 있었고 여자분 두 분.

예전에 지인하고 가셨을 때 그때도 이 젊은 부부가 계셨나요?
그때는 문을 닫았었어요.

그러면 들어가지는 못하셨네요.
영업을 안 하는 날이었어요.

여기가 학익시장 안에 첫 번째 가게가 있었고, 지금 가게가 두 번째고, 내일 오픈하는 이전한 가게가 세 번째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가게가 이제 그쪽 재개발로 인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고객들

의 추억을 제가 기록으로 남겨보고 싶은 건데 떡볶이를 드셨잖아요. 떡만이라고 부르는 메뉴도 있더라고요. 떡볶이를 따로 드셔보시고 만두도 따로 드셔보셨나요?

제가 이제 음식이 처음에 맛있으면 연속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떡볶이집을 처음 방문한 지가 한 2개월 됐나요. 2개월 이내에 네 번 정도 갔었어요. 정말 자주 간 거죠. 떡볶이만 최근에는 지난 주인 거 같아요. 떡볶이만 이제 사다 먹었어요.

떡볶이. 그 맛이 굉장히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네 번째잖아요.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하면은 그 집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떡볶이를 이제 여러 집을 이제 동네에 뭐 흔하게 있으니까 많이 다녔잖아요. 그런데 떡볶이를 먹고 싶다면 그냥 변함없이 그 집으로 갈 것 같아요. 또 만두도 만두소를 당면으로만 만드는 것도 좀 특이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떡볶이, 만두, 순대, 떡볶이집에서 분식집에서는 이제 공통으로 일반적으로 그 메뉴가 이제 다 있잖아요. 근데 떡볶이, 만두, 순대 하면 별 특별한 맛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저는 신당동 떡볶이는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고 맛있게 또 먹고 했었는데 서울에 살 때. 근데 인천에서는 이제 떡볶이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얼레폴레를 알면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메뉴를 가지고 이렇게 그게 특성화라고 하기에는 그분들이 이 이 메뉴

를 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이제 드는 생각이, 그분들이 굉장히 어떤 음식이라도 음식을 떠나서 어떤 거라도 그분들의 신념, 아니면 투철한 가치관 같은 것들이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스가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 비법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그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해서 그런 결과물이 나왔는지 궁금해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보게 됐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좀 평범한 메뉴이지만 그 속에서 이제 그 가치를 찾으신 거네요. 얼레폴레만의 매력을 또 새롭게 발견하시는 게. 이제 내일 새로 가게를 오픈하거든요. 그럼 그 가게에는 선생님만의 어떤 추억을 담고 싶으신지요?

저는 물론 맛의 변화는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요.

앞으로도 얼레폴레떡볶이 맛 변함이 없었으면 하는 건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이전하는 가게에 어떤 추억을 담게 될지 이제 앞으로 다녀봐야 알 것 같긴 한데요. 이제 두 번째 가게가 없어진다는 아쉬움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도 얼레폴레떡볶이 맛이 변치 않기를 고객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